

주요 내용

1. [한국인의 건강]

60세 이상 고령층, 1년 중 반년 이상을 몸이 아픈 상태로 지낸다!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2023 새해 전망(국제 비교)

2) 2022 방송매체 이용 행태



60세 이상 고령층, 1년 중 반년 이상을 몸이 아픈 상태로 지낸다!

2023년 계묘년의 새해가 밝았다. 많은 이들이 새해 소망으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꼽았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새해에 구독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건강’ 관련 데이터를 준비하였다.

한국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인 기대수명은 2021년 통계청의 생명표에 따르면 83.6세에 달한다. OECD 38개국 중에서도 남녀 모두 10위권 안(남자 9위, 여자 2위)에 들며 이제 장수국 대열에 들어섰다.(넘버즈 173호 참조)

그러나 작년 통계청 2022년 사회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 중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절반을 조금 넘고, 60세 이상으로 가면 큰 폭으로 떨어져 32%만이 ‘나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했다. 기대수명은 높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건강에 자신하는 비율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신문과 여러 방송 매체에서 건강염려증에 다룬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실제 2019~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년 사이 건강염려증 환자가 42%나 증가했으며, 우리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은 암에 걸릴까 봐 두려움을 갖고 있다(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이번 <넘버즈 175호>를 통해 한국인 개개인의 건강 인식과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한국의 보건 의료 현황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자료 출처 : 건강다이제스트, 건강염려증, 어떻게 벗어날까? 기사 참조, 2022.07.13.
(<http://m.ikunkang.com/news/articleView.html?dxno=36232>)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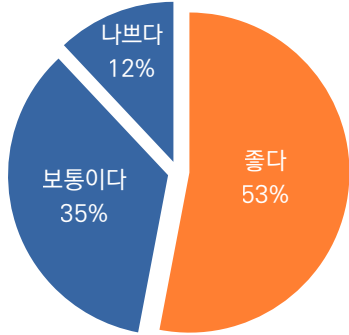
01

[한국인의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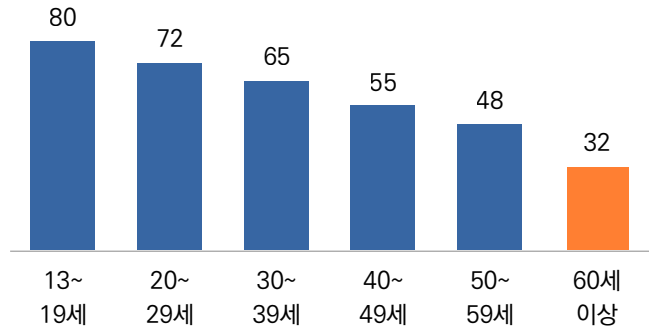
60세 이상 고령층, '나의 건강 상태 좋다' 32%에 불과

- ▶ 우리 국민 중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13세 이상 한국인의 53%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건강을 좋게 인식하는 비율(매우 좋다+좋은 편)이 낮아져 60세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32%)만 '나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했다.

[그림] 자신의 건강 상태 평가**



[그림] 연령별 건강 평가 ('매우 좋다+ 좋은 편'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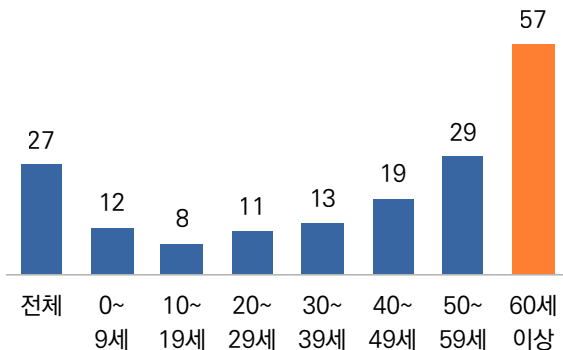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결과, 2022.11.16. (만 13세 이상 가구원, 35,792명, 면접/자기기입식/인터넷 조사, 2022.05.11~26)
**5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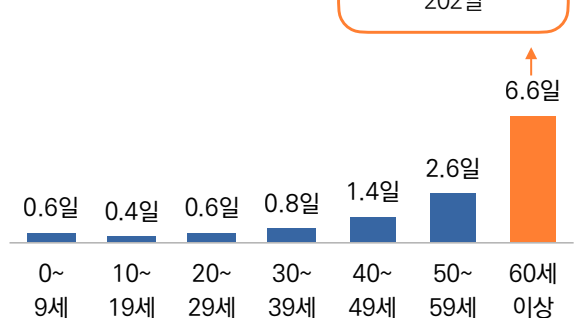
◎ 60세 이상 고령층, 1년 중 반년 이상을 몸이 아픈 상태로 지낸다

- ▶ 우리 국민에게 지난 2주간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전체 유병률은 2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까지는 10% 안팎의 유병률을 보였고, 6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6명(57%)이 아팠다고 응답했다.
- ▶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지난 2주 동안 유병일수가 평균 6.6일로 나타났으며, 이는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일이 된다. 즉,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년 동안 평균 202일간 몸의 어딘가 아픈상태로 지낸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림] 유병률** (전체/연령별, %)



[그림] 유병일수*** (2주간, 전체 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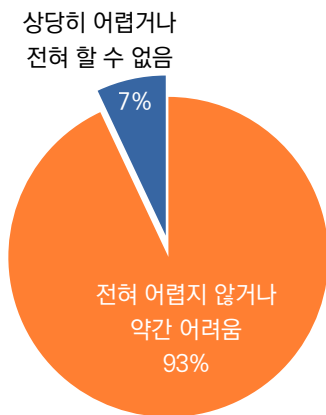
60세 이상 1년 기준
202일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결과, 2022.11.16 (만 13세 이상 가구원, 35,792명, 면접/자기기입식/인터넷 조사, 2022.05.11~26)
**지난 2주일 동안 0세 이상 중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는 유병자 기준으로 유병일수를 집계하여 발표했으나, 여기서는 전체 인구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여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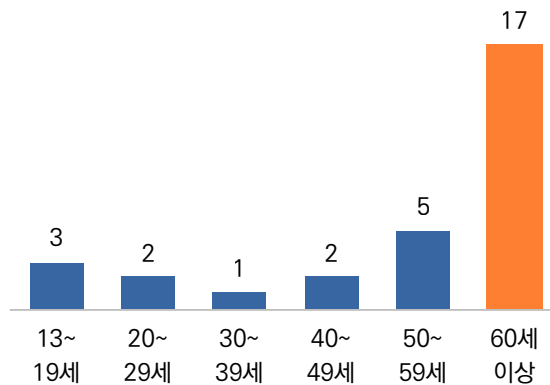
◎ 60세 이상 고령층, 6명 중 1명은(17%)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 수행하는 게 어렵다!

- ▶ 13세 이상 우리 국민 중 활동 제약 상태 즉, 다음의 6가지 활동 유형(①걷거나 계단 오르기, ②안경을 써도 보는데 어려움, ③기억하거나 집중하는 데 어려움, ④보청기를 사용해도 듣는데 어려움, ⑤웃입기, 목욕 등 자기 관리 활동하기 어려움, ⑥말을 하거나 듣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 중 하나라도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렵거나 전혀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로 나타났다.
- ▶ 활동 제약 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는 5% 이내이나, 60세 이상의 경우 17%까지 높아져 노인층 6명 중 1명 정도는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활동 제약 상태** (%)



[그림] 연령대별 활동 제약 상태 비율
(‘상당히 어려움+전혀 할 수 없음’ 비율,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결과, 2022.11.16. (만 13세 이상 가구원, 35,792명, 면접/자기기입식/인터넷 조사, 2022.05.11~26)

**4점 척도임, 6개 활동 유형 중 1개라도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렵거나 전혀 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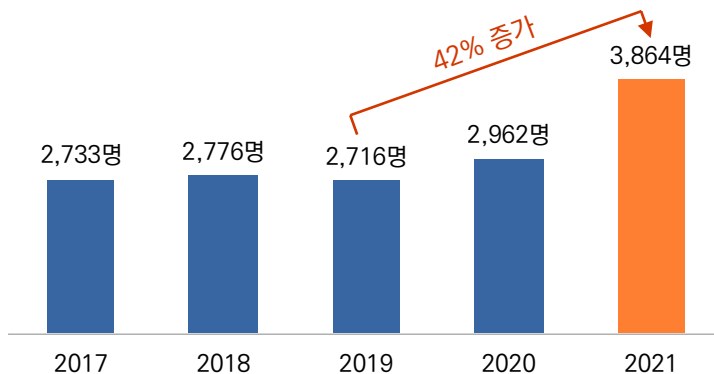
02

[한국인의 건강관련 인식]

2년 새(2019→2021), 우리나라 건강염려증 환자 42% 증가

- ▶ 사소한 신체의 변화나 증상에도 예민하게 반응해 질환이 있다고 믿는 심리적 장애를 '건강염려증'이라고 일컫는다. 우리나라에 이런 건강염려증을 가진 환자 수가 2019년 2,716명에서 2021년 3,864명으로 코로나19 이후 2년 사이에 무려 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건강염려증 환자 수 (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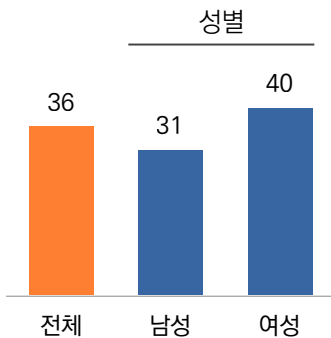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국민 관심 질병 통계 (2019년-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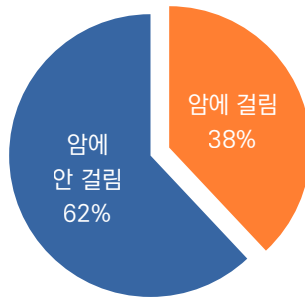
◎ 한국인 3명 중 1명 이상(36%), ‘암에 걸릴까 봐 두려다!’

- ▶ 우리 국민에게 평소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암에 걸릴까 봐 두려다’고 응답한 비율이 36%나 되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실제 정부의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죽기 전까지 암에 걸릴 확률은 38%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 하지만 한국의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2019년) 165명으로 OECD 35개국 평균(204명)을 한참 밑돌아 하위권에 랭크됐는데, 주목할 점은 한국인 남녀 간 암 사망률(남성 249명, 여성 109명)이 2배 이상 격차를 보인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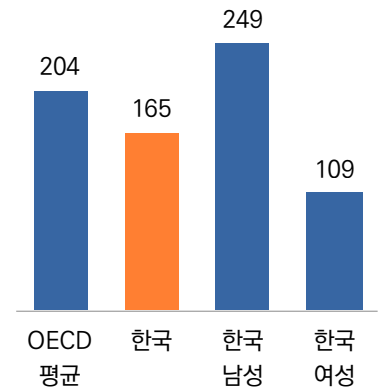
[그림] 암에 대한 두려움*
(‘매우+약간 두려움’, 5점 척도, %)



[그림] 죽기 전까지 암에 걸릴 확률
(2019 국가 암 등록 통계)**



[그림] 암 사망률***
(2019, 인구 10만 명당, 명)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결과, 2022.11.16 (만 13세 이상 가구원, 35,792명, 면접/자기기입식/인터넷 조사, 2022.05.1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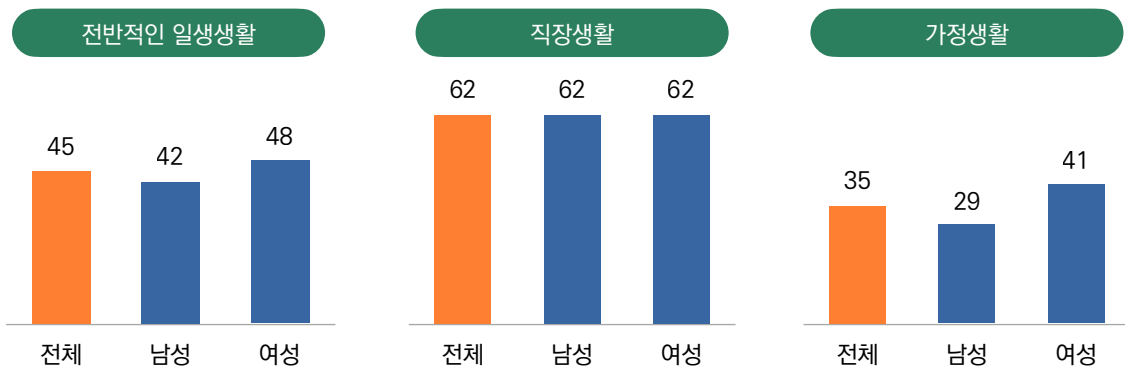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헬스조선, ‘한국인 죽기 전 ‘암’ 걸릴 확률은?’ 2021.12.29. (원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암등록본부 ‘2019 국가 암 등록 통계’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29/2021122901448.html))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으로 현황 보도자료, 2022.07.26.
Note. OECD 평균은 2019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5개국 평균임

◎ 한국인의 스트레스,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특히 가정생활에서 차이 커!

- ▶ 우리 국민(13세 이상)에게 스트레스 체감 정도를 묻은 결과,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62%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인 일상생활 가운데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도 45%로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성별로 보면 여성이 대체로 남성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남성 대비 1.4배나 높았다.

[그림] 스트레스 체감 정도** (지난 2주간, ‘매우+느끼는 편’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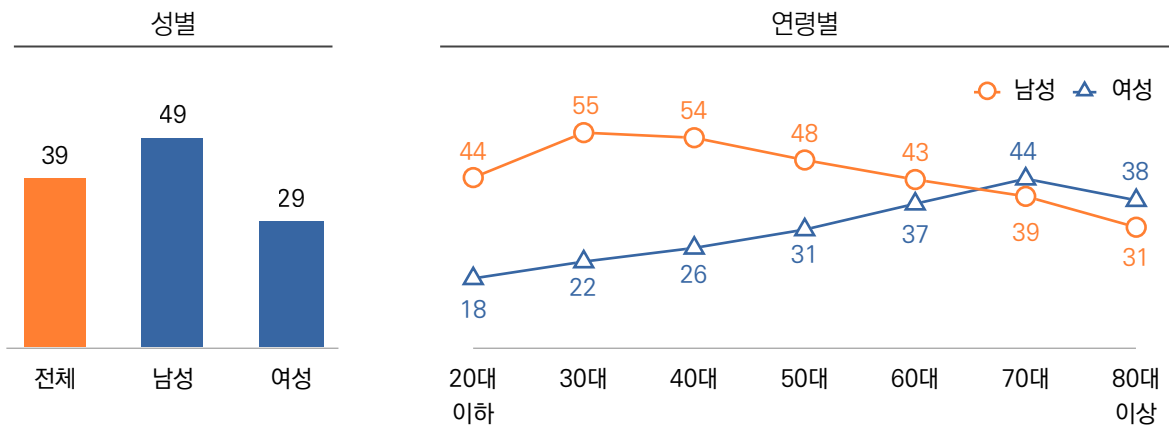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결과, 2022.11.16 (만 13세 이상 가구원, 35,792명, 면접/자기기입식/인터넷 조사, 2022.05.11-26)

**4점 척도임

◎ 한국 남성의 절반(49%)이 비만

- ▶ 대한비만학회는 BMI(체질량 지수) 25 이상을 1단계 비만으로 분류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2021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인 중 1단계 비만의 비율은 39%로 10명 중 4명이 '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 특히 남성의 경우 절반(49%) 정도가 1단계 비만이었다. 연령대로 보면 남성은 30~40대에서, 여성은 70대에서 1단계 비만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한국 성인의 비만율 (BMI 25 이상 1단계 비만 기준, %)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건강검진통계연보 발간 보도자료, 2022.12.30.

**자료 출처 : 국민일보, 살찌는 한국인...30대 男 55.4% '1단계 비만', 2022.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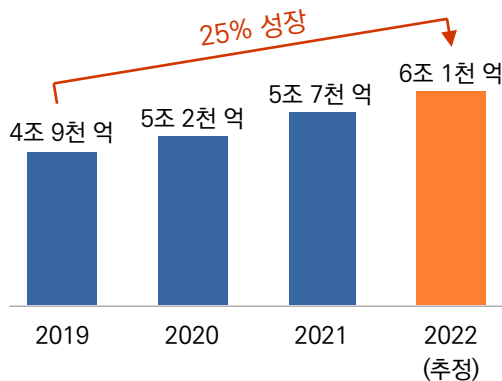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816267&code=61121911&sid1=soc>)

Note. 용어참조: BMI(체질량지수= 몸무게(kg)/키(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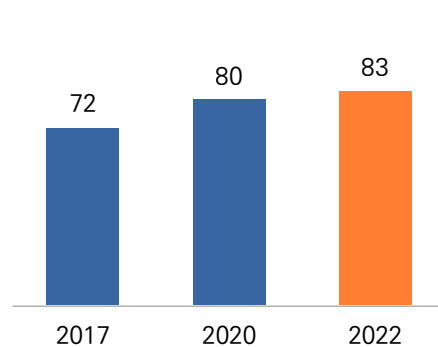
◎ 한국인, 대부분(83%)의 가정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취식하고 있어!

-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최근 발간한 '2022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2년에는 6조 원 규모를 넘어서 지난 3년간 무려 2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경험률(가구기준)을 살펴보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2017년 72%에서 2022년에는 83%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여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원)



[그림] 연간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률** (가구 기준, %)



*자료 출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보도자료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6조 규모 넘어서... 전년비 8% 성장', 2022.12.01.

**자료 출처 : 식품저널,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5조... 5년새 20% 확대', 2021.12.02.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893>)

(2022년 데이터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보도자료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6조 규모 넘어서... 전년비 8% 성장', 2022.12.01.>에서 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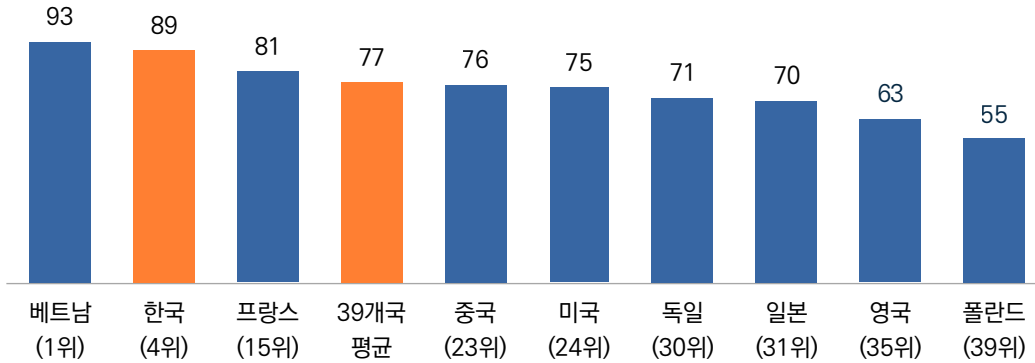
03

[세계인의 건강 비교]

한국인, '나는 건강하다'인식, 39개국 중 최상위권!

- ▶ 글로벌 조사 네트워크인 WIN이 39개국 성인(33,236명)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묻은 결과(Win World Survey), 응답자의 77%는 '건강하다'(매우+건강한 편)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조사는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건강하다는 응답이 10명 중 9명꼴(89%)로, 39개국 중에서도 최상위권(4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세계 주요국의 전반적인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매우+건강한 편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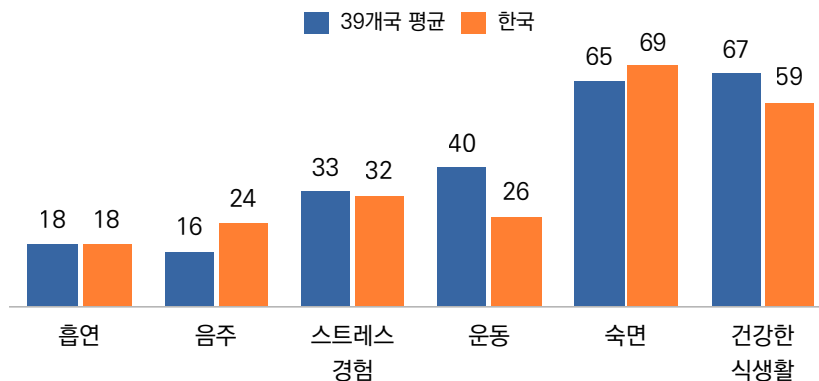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건강 상태 인식과 관련 행동-WWS(WIN World Survey) 다국가 조사, 2022.04.14.(세계 조사: 39개국 성인 총 33,236명, 전화/온라인/면접 조사(주제별 참여국 상이), 2021.10~12/ 한국 조사: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1,500명, 면접조사, 2021.11.05.~11.28)
**4점 척도임

◎ 한국인, 다른 나라보다 음주 잦고 운동 덜하는 편!

- ▶ 앞에서 언급한 Win world Survey에서 건강에 좋은 행동(운동, 숙면, 건강한 식생활)과 건강에 좋지 않은 행동(흡연, 음주, 스트레스) 총 6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빈도를 물었다.
- ▶ '39개국 평균'과 '한국'의 행동 빈도(항상+자주 한다)를 비교한 결과, 한국인의 음주 비율(24%)은 39개국 평균(16%)을 넘어섰고, 운동 빈도(항상+자주 한다)는 39개국 평균(40%) 대비 1.5배 낮았으며(26%), 건강한 식생활도 평균에 못 미치는 것(39개국 평균 67%, 한국 59%)으로 나타났다.

[그림] 6가지 건강 관련 행동 빈도 (39개국 평균 vs 한국, '항상+자주 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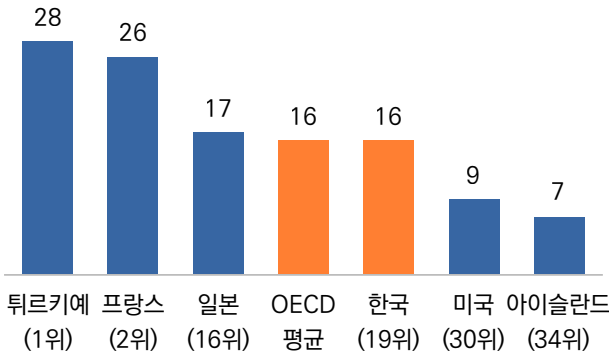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건강 상태 인식과 관련 행동-WWS(WIN World Survey) 다국가 조사, 2022.04.14.(세계 조사: 39개국 성인 총 33,236명, 전화/온라인/면접 조사(주제별 참여국 상이), 2021.10~12/ 한국 조사: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1,500명, 면접조사, 2021.11.05.~11.28)
**5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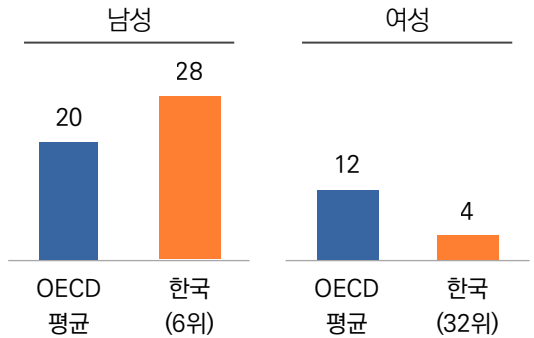
◎ 한국 남성 흡연율, OECD 34개국 중 상위권(6위)!

- ▶ 여러가지 건강 위험요인 중 흡연율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비율(흡연율)은 OECD 평균(16%)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 ▶ 다만,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28%로 OECD 남성 평균(20%)을 크게 웃돌았고, OECD 34개 국가 중에서는 6위로 상위권에 랭크됐다. 한국 여성의 흡연율(4%)은 OECD 평균(12%)의 1/3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그림] OECD 주요국 흡연율 (2020, 15세 이상, %)



[그림] 한국 vs OECD 34개국 평균 흡연율 비교 (2020, 15세 이상, 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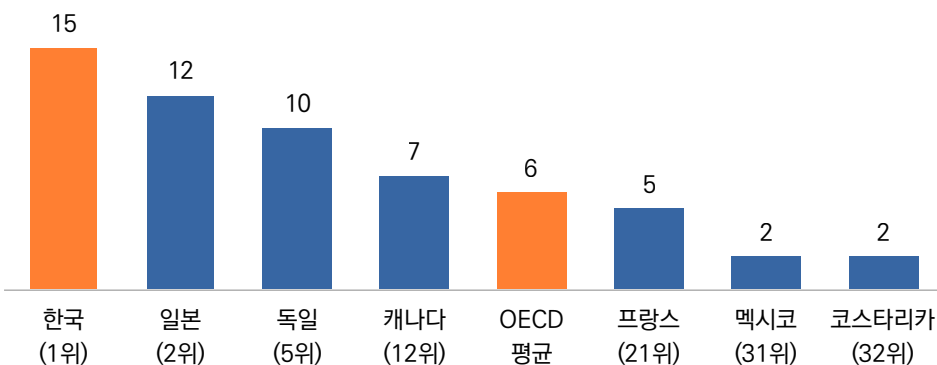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 의료 현황 보도자료, 2022.07.26.
 Note. OECD 평균은 2020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04

[세계 속 한국인의 보건의료 이용] 우리 국민, 연 평균 15회 병원 진료로 OECD 국가 중 최대!

- ▶ 우리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를 살펴본다. OECD 평균(32개국)이 1인당 연간 6회 외래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우 15회로 무려 OECD 평균의 2.5배로 1위를 차지했다.
- ▶ 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10회를 넘어가는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독일이 이름을 올렸다. 또, 가장 외래 진료 횟수가 적은 국가는 코스타리카였다.

[그림] OECD 주요국(32개국)의 연간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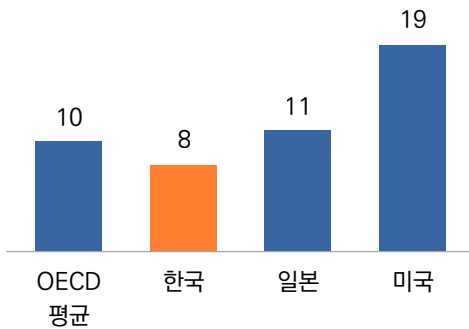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 의료 현황 보도자료, 2022.0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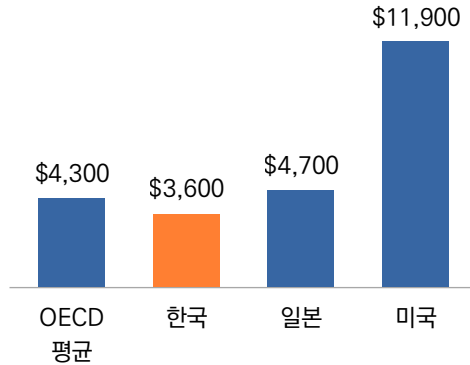
◎ 한국인 1인당 의료비 지출, OECD 평균보다 낮다!

- ▶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 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최종 의료비, 즉 경상의료비가 GDP(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봤다.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가 8%로 OECD 평균(10%)보다 낮았고, 미국이 19%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았다.
- ▶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경상의료비는 3,600 달러로 OECD 평균 4,300 달러의 84% 수준이었고, 일본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미국의 경우 11,900 달러로 국민 1인당 의료비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지출을 하며 한국 대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국민 총생산(GDP)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2020기준, %)



[그림] 국민 1인당 의료비 (2020기준, 1년, US 달러 기준)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 의료 현황 보도자료, 2022.07.26.
 Note. 2020년 통계가 있는 OECD 38개국의 평균임

시사점

한국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특별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유례없이, 건강 정보, 건강 유지 활동, 각종 보양 및 영양식에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 연못, 저수지에 외래종인 황소개구리가 생태계를 파괴하자 황소개구리가 정력에 좋다고 소문을 내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잡아 먹어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양식 사랑이 유별나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비단 중장년에 국한되지 않는다. 2030세대도 건강 관리에 큰 관심을 쏟는다. 차이가 있다면 중장년은 정력 혹은 활동 에너지를 키우는 건강 상태를 지향하는 반면, 2030세대는 건강한 몸과 함께 아름다운 외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20대 10명 가운데 8명이나 단백질/프로틴 제품을 섭취한다고 할 정도이다. 이는 단백질/프로틴이 가벼운 식사나 간식을 대용하기 때문이며 또한 운동 후 근육을 보충해주기 때문이다.(오픈서베이, '건강관리 트렌드 리포트 2022', 2022. 08)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건강 관리에 나서다 보니 '스스로 건강하다'는 주관적 건강 의식이 세계 주요 39개국 가운데 4위로 최상위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에는 취약성이 있다.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여겨지는 암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 3명 가운데 1명 이상(36%)이 암에 걸릴까봐 두렵다고 할 정도로 건강 염려증을 갖고 있다. 실제 건강염려증 환자는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2019년 이후 42%나 증가된 것으로 발표됐다.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성인 비만률(BMI 25 이상)은 39%로 10명 가운데 4명이 비만에 속할 정도로 과잉 양화되어 있다. 현대인의 건강 문제는 육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제도 있다. 우리가 평소 느끼듯 현대인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율이 45%이나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은 무절제한 생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음주 비율(24%)은 앞의 국제 조사에서 39개국 평균(16%)을 넘어섰고 운동 빈도는 39개국 평

균(40%) 대비 1.5배 낮았으며(26%) 건강한 식생활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평균 67%, 한국 59%)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욕구를 줄이고 생활을 자제하는 것에서 미흡함을 보였다.

종교와 건강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개 종교적 참여, 특히 예배 참석이 더 나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해왔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대 수명이 길고 사망률이 낮으며, 자살이나 우울증 문제도 덜 경험하고 정신 건강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김명희/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종교는 때로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 「시사인」 2021. 08. 16) 종교가 일종의 '사회적 건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이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더 절제된 생활을 하며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건강 문제를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다음의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우리 몸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 조상들은 자신의 신체를 부모님이 주신 것이므로 조금도 훼손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몸을 소중히 여겼다. 1895년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머리를 하라는 단발령이 내려지자 성인 남성들이 크게 반발한 것은 '효'를 핵심 이념으로 하는 성리학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 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건강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 절제는 영성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절제의 영성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수도원이다. 수도원에서는 불필요한 언사를 하지 않으며, 행동거지도 요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물건 소비도 최소화하며, 음식도 검소하게 섭취한다. 오늘날 자기 욕망과 욕구 충족을 위해 절제없이 과하게 먹는 것과 소비하는 것이 용인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절제의 미덕을 보이므로 자기 건강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모범을 보일 것이 요구된다.

한가지 더! 이번 보고서에서는 노인 건강에 대해서도 일부 다루었다. 주관적인 건강도 인식이 60세 이상이면서 크게 하락해 이 그룹에서 32%만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유병률을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1년 중 202일, 즉 반년 이상을 몸 어딘가 아픈 상태로 지내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의 실제 주류 세력인 60세 이상 고령층이 유병상태에 있다는 것을 목회자들이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 이와 같은 데이터를 제시했다.

노인이 되면 사회적 고립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외로움이 더 심해진다. 거기에다 몸도 젊을 때와 달리 매일 불편하고 아프다. 한국교회가 노인 건강에 대해 좀 더 관심 갖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 건강 문제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국교회를 기대해 본다.

1.[2023 새해 전망-국제비교]

2.[2022 방송매체 이용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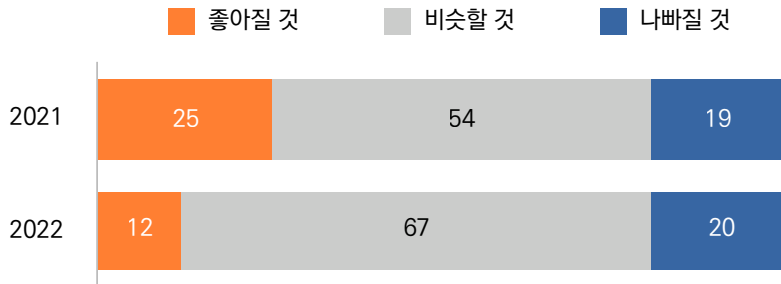


2023년 새해 우리 국민 개인의 삶 전망?

‘좋아질 것’(12%),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 ▶ 우리 국민은 2023년 개인의 삶을 어떻게 전망할까? 한국갤럽이 새해 개인의 전반적인 삶을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해 묻은 결과,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2%로 전년 조사 결과(25%)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20%로 긍정 전망보다 두 배가까이 높았다.

[그림] 새해(내년) 개인의 삶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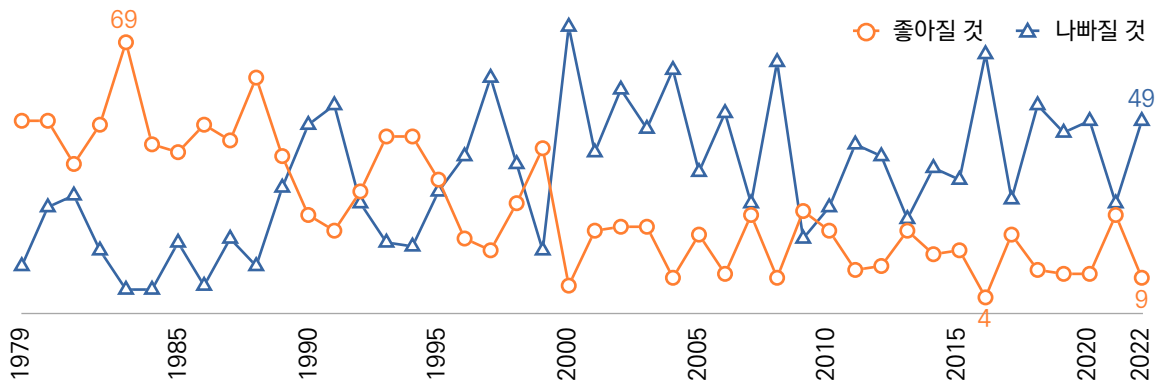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Gallup International/한국갤럽, 2023년 새해 전망- 다국가 비교 조사, 2022.12.29. (세계 조사: 35개국 성인 총 35,664명, 전화/온라인/면접조사, 2022.10~12/ 한국 조사: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1,549명, 면접조사, 2022.11.07~11.24)
Note. 3점 척도임(모름, 무응답은 제외)

◎ 한국인의 새해 경기 전망, 나빠질 것 44%, 좋아질 것 9%

- ▶ 한국갤럽이 1979년부터 조사 발표한 한국인의 새해 경기전망 추이를 살펴본다. 새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한 것이라고 보는지 물었더니 한국인의 9%만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나빠질 것’ 49%, ‘비슷할 것’ 41%로 비관적이거나 유보적인 인식을 보인 경우가 낙관론 대비 4배 이상 높았다.
- ▶ 한국인의 경기 전망 과거 44년간의 추이를 보면, 새해 경기에 대한 전망은 대략 2000년을 기점으로 비관적 전망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한국인의 새해(내년) 경기 전망 : 44년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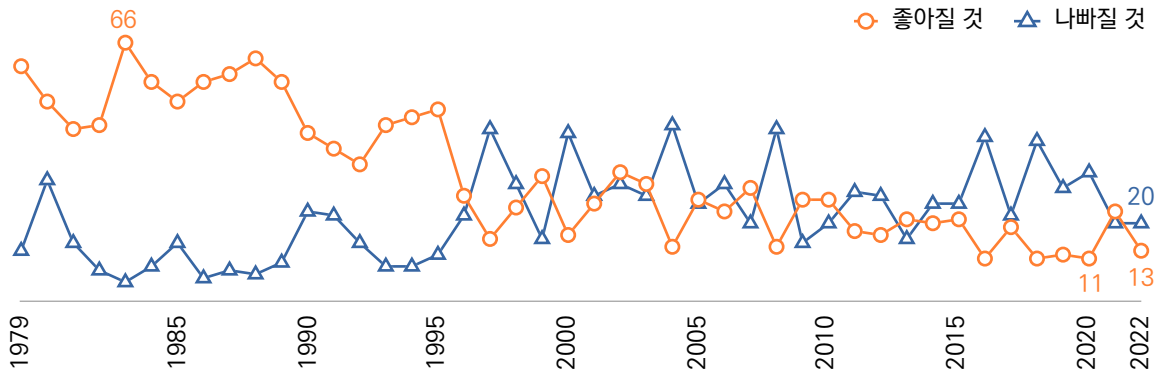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Gallup International/한국갤럽, 2023년 새해 전망- 다국가 비교 조사, 2022.12.29. (세계 조사: 35개국 성인 총 35,664명, 전화/온라인/면접조사, 2022.10~12/ 한국 조사: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1,549명, 면접조사, 2022.11.07~11.24)
Note. 3점 척도임

◎ 한국인 새해 살림살이 전망, 성인 3명 중 2명(66%)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해!

- ▶ 2023년 살림살이 전망에 대해 우리 국민의 13%가 '좋아질 것', 20%가 '나빠질 것', 66%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해 긍정인식보다 부정인식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지난 44년 간의 새해 전망 추이를 보면 1995년까지는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한 편이었다가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낙관론과 비관론의 우세가 교차/등락을 거듭하며 낙관론이 크게 앞선 해가 없었다. 2010년도부터는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더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한국인의 새해(내년) 살림살이 전망 : 44년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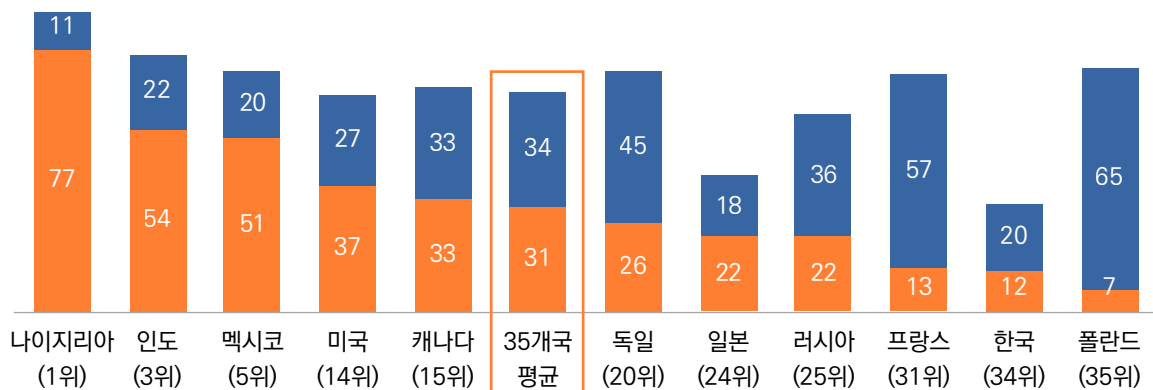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Gallup International/한국갤럽, 2023년 새해 전망- 다국가 비교 조사, 2022.12.29. (세계 조사: 35개국 성인 총 35,664명, 전화/온라인/면접조사, 2022.10~12/ 한국 조사: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1,549명, 면접조사, 2022.11.07.~11.24)
Note. 3점 척도임

◎ 한국인의 새해 전망 긍정인식, 세계 최하위권!

- ▶ 한편 갤럽 인터내셔널이 세계 35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2023년 새해 전망을 물은 결과를 보면 (2023년 새해는 2022년보다) '좋아질 것' 31%, '나빠질 것' 34%, '비슷할 것' 27%로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됐다.
- ▶ 국가별 새해 전망을 살펴보면 '나이지리아'가 77%로 새해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인도(54%), 멕시코(51%) 등의 국가에서 '올해가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률이 50%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다.
- ▶ 우리나라의 경우 새해 낙관 비율은 12%였는데 이는 35개국 중 34위로 세계 평균(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림] 2023년 새해 주요 국가별 전망 ('좋아질 것', 갤럽 인터내셔널 세계 35개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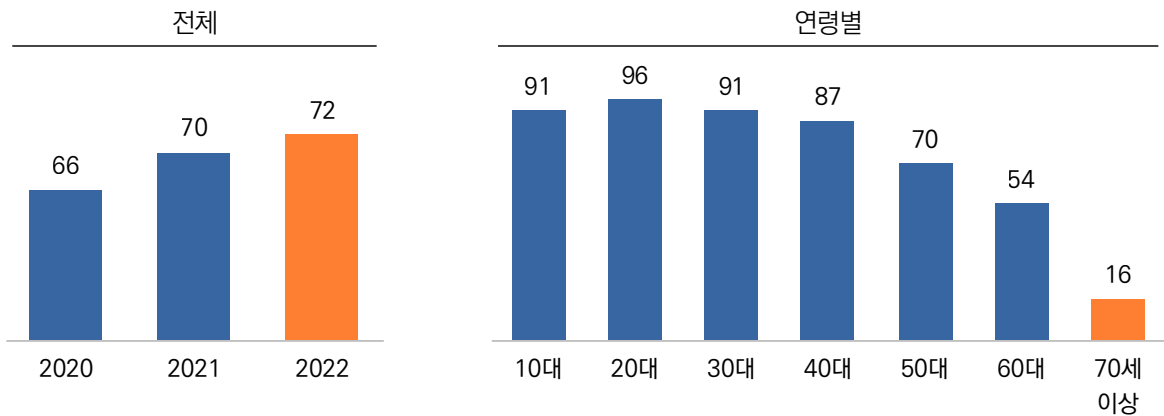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Gallup International/한국갤럽, 2023년 새해 전망- 다국가 비교 조사, 2022.12.29. (세계 조사: 35개국 성인 총 35,664명, 전화/온라인/면접조사, 2022.10~12/ 한국 조사: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1,549명, 면접조사, 2022.11.07.~11.24)
Note. 3점 척도임



13세 이상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OTT** 이용한다!

-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작년(2022년) 12월 말 발표한 ‘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우리 국민에게 평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 여부를 물은 결과, 2020년 66%에서 조금씩 증가하여 2022년에는 72%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를 사용하는 셈이다.
- ▶ OTT 이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OTT 이용률이 96%로 가장 높았고, 10대와 30대는 90%대 초반의 이용률을, 40대부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OTT 이용률이 낮은 경향이 뚜렷했다.

[그림] OTT 이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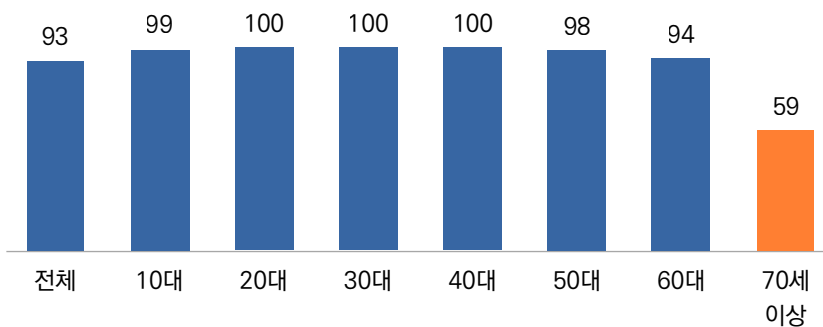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12.27. (전국 4,287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6,708명, 방문 면접 조사, 2022.06-08)

**OTT는 Over-The-Top(셋톱박스를 넘어)의 약자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하며, 대표적인 서비스로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등이 있음

◎ 만 13세 이상 한국인, 스마트폰 보유율 93%...70세 이상은 60% 수준!

- ▶ 이번 조사에서 만 13세 이상 우리 국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3%로 나타났다. 10~50대의 스마트폰 보유 비율은 98%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반면 70세 이상의 경우 59%로 10명 중 6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제는 국민 1인 1스마트폰 시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스마트폰 보유율 (2022, 전체/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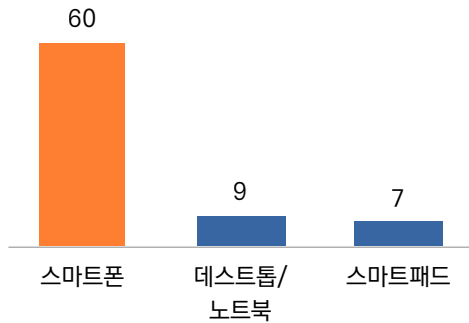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12.27. (전국 4,287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6,708명, 방문 면접 조사, 2022.06-08)

◎ TV 시청하면서 10명 중 6명은 ‘스마트폰’도 함께 본다

- ▶ TV 시청 중 다른 매체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을 확인한 결과, ‘스마트폰’이 60%로 가장 높았고, ‘데스크톱/노트북’ 9%, ‘스마트패드’ 7%가 그 뒤를 이었다.
- ▶ 우리 국민이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 SNS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10명 중 6명이나 되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TV 시청 중 타 매체 동시 이용률 (2022, 전체 응답자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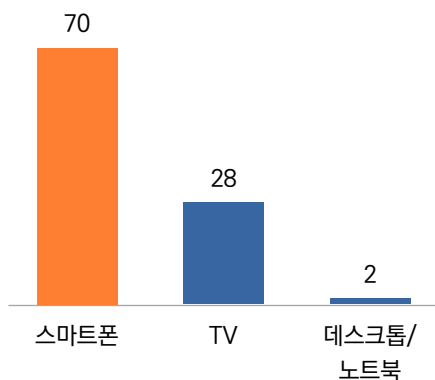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12.27. (전국 4,287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6,708명, 방문 면접 조사, 2022.0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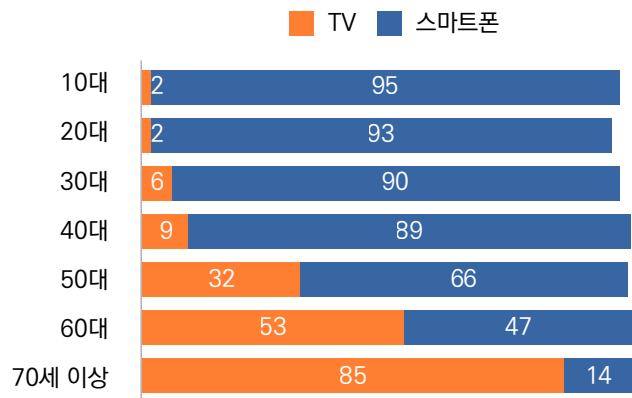
◎ 일상생활 필수매체 인식, 10~50대까지는 스마트폰, 60대 이상은 TV!

- ▶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매체를 한 가지만 꼽으라고 질문한 결과, 2015년 조사부터 TV를 앞질러 필수매체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7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TV’ 28%, ‘데스크톱/노트북’ 2% 순이었다.
- ▶ 연령대별로 보면 10~40대는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선택한 비율이 90%안팎으로 매우 높았고, 50대에 서도 3명 중 2명(66%)은 스마트폰을 꼽았다. 반면 60대 이상부터는 현재까지는 TV를 더 필수적인 매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70세 이상에서는 TV 선호율이 압도적이었다.

[그림] 필수매체 인식도 (2022, 상위 3위, %)



[그림] 연령별 필수매체 (TV vs 스마트폰, 2022, %)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12.27. (전국 4,287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6,708명, 방문 면접 조사, 2022.06-08)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25호\(2023년 1월 1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새해 국정 우선 과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 사회 일반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노인' 69.4세...적정생활비 부부 월 277만](#)

연합뉴스_2023.01.03.

["주변서 이상하게 안봐요" 외벌이 6쌍중 1쌍은 아내가 돈 번다](#)

중앙일보_2023.01.05.

["韓 고령층 40%가 일해"...NYT '은퇴 못하는 아시아 노인들' 조명](#)

연합뉴스_2023.01.08.

["맞벌이 안 할 수도 없고"...코로나 때 초등생 13% '나홀로 집에'](#)

매일경제_2023.01.01.

[국민 10명 중 6명 "전력·철도·병원 정부가 운영해야"](#)

매일경제_2023.01.05.

◎ 경제 / 기업

["부자 되고 싶어요"...직장인 새해소망 1위는 '임금 인상'](#)

매일경제_2023.01.08.

[직장인 '무기력·우울감' 괴롭다면... '이것' 길러라](#)

동아일보_2023.01.05.

[3년 미만 초기창업 벤처기업 70% 수도권 편중](#)

연합뉴스_2023.01.04.

◎ 건강

["나이는 숫자일 뿐" 사실이였다...젊다고 생각할수록 수면의 질 ↑](#)

뉴스1_2023.01.04.

[고혈압 심하면 하루 커피 두 잔은 금물... 사망률 높아진다](#)

조선일보_2023.01.04.

◎ 기후 환경

[80억번째 태어난 아이, '극한지구'에서 어떻게 버틸까](#)

한겨레_2023.01.03.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국제

["열정? 글썄요" 성공보다 워라밸 중요해진 미 직장인들](#)

[연합뉴스_2023.01.02.](#)

◎ 기독교 / 종교

[‘나·섬’\(나눔과 섬김\)이 답이다](#)

[더미션\(국민일보\)_2023.01.03.](#)

[미국 기독교인 83% “하나님과 매일 교제 시간 갖는다”](#)

[크리스천투데이_2023.01.09.](#)

◎ 기획기사 : 청년들의 고민 리포트 ‘결혼’, 더미션(국민일보)

[1. 기독교인 ‘반쪽’ 찾다보니 결혼 문턱 높아지네요 _2023.01.04.](#)

[2. 믿음은 없지만 나 좋다는 사람... 결혼 고민입니다 _2023.01.04.](#)

[인류의 가장 슬픈 질환, 치매 (머니S)]

[① 2050년엔 300만명...가족도 나 자신도 모든 게 사라졌다 _2023.01.09.](#)

[② 고립되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모두가 외롭다” _2023.01.09.](#)

[③ “환자도 가족도 행복해야죠”...주요국 치매 지원은 어떻게 _2023.01.09.](#)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올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정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정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캐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삼신테크,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릭스,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가우진, 강영원, 강정남, 강종희,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권순홍, 김고은, 김관상, 김기혁, 김동찬, 김동하, 김명준,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식, 김성은, 김성현, 김숙정, 김시은,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기,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인수, 김종천, 김재욱, 김주형, 김지한, 김 찬, 김태철,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근, 나윤만, 남기환, 남도현, 남상태, 노기환, 노현민,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상훈, 박세웅, 박승수, 박영철, 박영호, 박재덕,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지혜,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변형석,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경복, 서기원, 서연우, 서영진, 서우정, 서은영,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승민,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심명현, 안요한,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양승일, 엄정석, 여삼열, 오강일,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영민, 유진웅, 유휘창, 윤도형, 윤동하, 윤성덕, 윤여민, 윤영조, 윤정국, 윤치호, 윤희경, 이경만, 이경선, 이국희, 이기원, 이광호, 이대식,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성, 이상호, 이석윤, 이선진, 이성근, 이성득,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재혁,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형근,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원하나, 장명철,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준영, 장진수, 장재영, 장형철, 전근영, 전병철, 전응림, 전치영, 정기목, 정부할, 정영자,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진혁, 정재웅,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도환, 지연희,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인화,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명호,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한재, 최현갑, 최호균, 한동준, 한병록, 한영숙,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정읍성광교회(담임목사 김기철), 더세움교회(담임목사 송주현), 우정교회(담임목사 예동열), 대구칠곡교회(담임목사 우성민), 송내교회(담임목사 김은학), 이석준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 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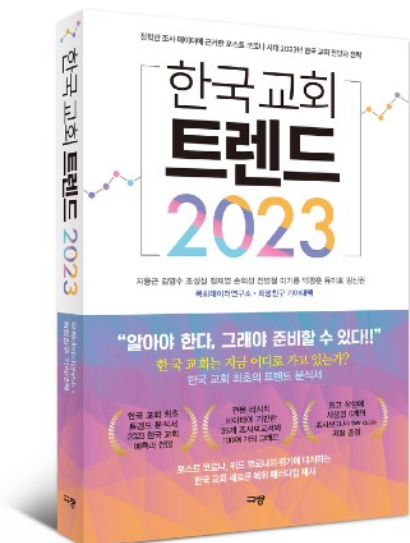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술,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연구소 소식.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출간 |

-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예측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국내 최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부록으로 원고 작성을 위한 6개 조사보고서를 드립니다.)

보도 자료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